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 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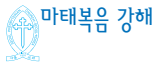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 행동 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세 가지 비유

(마 13:44-50)

본문에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에 이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1.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44절).

① 천국의 의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인 외형적 세력으로 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천국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바리새인들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② 천국은 감춰져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에 속한 기쁨과 소망과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사람들이 그 가치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③ 천국의 특징은 기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천국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게 됩니다.

2. 값진 진주 비유

46절의 값진 진주 역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장사는 진주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기에 주저함 없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자신이 발견한 아름다운 진주를 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주를 손에 넣고 기뻐하는 장사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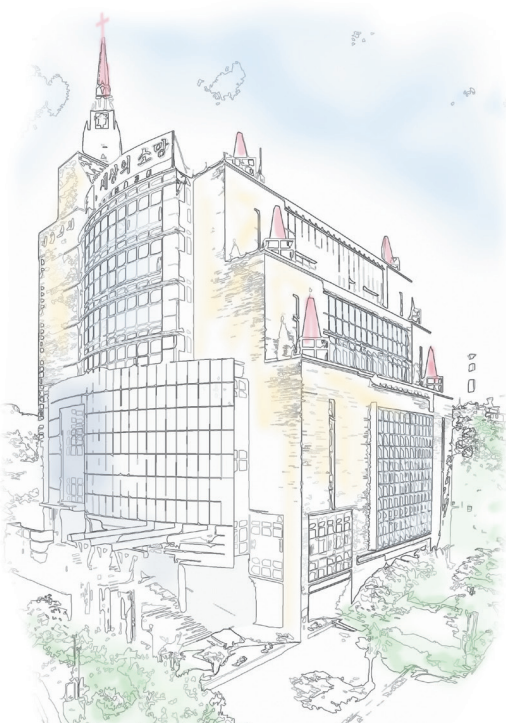
3. 그물 비유

천국은 또한 바다에 쳐 놓은 그물과 같다고 합니다(47절). 그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물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물에 걸린 것이 전부 좋은 물고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다 버린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오직 천국 기쁨에 충만하여 못영혼을 구원하는 천국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ree Parables

(Matt. 13:44-50)

In the text, the parables of custard seeds, yeast, and the weeds will be followed by another three parables.

1. Treasure hidden in a field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treasure hidden in a field”(v. 44).

A. The meaning of the kingdom of heaven

The Pharisees thought that God’s kingdom is a visible and physical power. Even Jesus’ disciples thought this fact. The Pharisees asked Jesus when the kingdom of God would come. There upon, Jesus said that the kingdom of God had already been given to you. Here, the kingdom of heaven refers to Jesus, and he was surrounded by the Pharisees at that time.

B. The kingdom of heaven is hidden

Since we believe in Jesus, we have eternal life, enjoy the joy, desire, and blessing that belong to the Kingdom of heaven, and live our life. But, why don’t they believe Jesus? Because,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treasure hidden in the field, they could not experience the value of it.

C. The kingdom of heaven is joy

Those who found out the value of Jesus Christ want to possess the Kingdom of heaven, namely, Jesus Christ, by selling all the possession of his own life. Therefore, there must be a real joy to those who possess Jesus Christ.

2. The parable of great valuable pearl

The great valuable pearl in verse 43 also means Jesus Christ. A merchant looking for a fine pearl buys the pearl by selling everything he had. Because the merchant knew the value and beauty of great pearl, he sold his own possession without hesitation, and bought it. Here, we can imagine what joyful the merchant felt when he held the pearl in his hands.

3. The parable of the net

It is said that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net that was let down into the lake (v. 47). The net is ‘Jesus Christ’. All kinds of fish are caught into the net. But all fish caught into the net are not good fish. And then, the owner puts good fish in the basket and throws the bad away. Like this, even though we have the name of Christian, we cannot be all saved.

My beloved Christians,

Do you all really know the beauty and value of Jesus? Do you live your life in the joy and peace of which the world cannot give us and take away from us?
By being full of joy of the kingdom of heaven,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live as the people of the kingdom of heaven saving many soul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4 흥해 작전 개전

오늘 찬양예배 시 발대식

6월 6일(금)~25일(수) 새벽 5:00~6:00 / 강사: 박노철 담임목사

2014년 흥해작전이 오늘 찬양예배 시 발대식을 갖고 6일(금) 새벽부터 시작한다.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 (히11:16, 존 번연의 『천로역정』)라는 주제로 6월 6일(금) ~ 25일(수)이며 새벽 5시부터 6시까지다. 흥해작전은 택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시고, 흥해를 열어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

하신 우리 하나님께,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조국의 안전과 복음화, 서울교회와 한국교회의 부흥, 가정과 개인의 기도제목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흥해를 믿음으로 건너고자 하는 “말씀과 기도운동”이다. 성도들은 기도로 준비하기 바란다.

- 흥해작전 조직 -

- 사령관 : 박노철 담임목사
- 지 도 : 서명철 목사
- 참모장 : 이영기 장로
- 차 장 : 최규초 집사
- 기획참모부 : 이준호 집사
/김광태 집사, 교회학교 각 부장
- 예배참모부 : 김광욱 집사
/송용훈 집사, 예배위원회 예배위원
- 동원참모부 : 오유식 집사
/교구위원회 부교구장, 교구간사
- 홍보참모부 : 정치는 집사
/허숙 권사, 순례자팀
- 봉사참모부 : 고정숙 권사
/제2권사회, 여전도회, 피택권사
- 안내참모부 : 최차순 집사
/스테반회, 피택장로, 피택집사

흥해작전 기도제목

- 1. 우리 앞의 흥해를 가르시는 주님!**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 앞에 있는 흥해를 활짝 열어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 2.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일을 더 사랑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 3. 말씀과 기도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무장하여,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고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 4. 우리에게 다음세대를 맡겨주신 주님!**
서울교회의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잘 양육되어 교회와 국가와 세계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 5.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개인과 가정, 일터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어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 6.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서울교회가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라와 민족의 큰 일꾼이 되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게 하옵소서.
 - 7.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 새벽마다 흥해를 건널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병대 교육훈련단 진중세례식

6월7일(토) 오후2시 해병대훈련단교회에서

군복음화를 통하여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한 해병대 신병들에 대한 진중세례식 및 성찬식이 우리교회 비전2020운동본부(부장 이갑진 장로) 주관으로 오는 6월 7일(토) 오후2시에 포함 해병대교육훈련단 교회에서 거행되며, 박노철 담임목사가 설교한다. 당일 오전 6시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한다. 성도들의 깊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다니엘 목사 'Imago' 공연 - 6월10일(화) 오후 7:00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김다니엘 목사

김다니엘 목사(영어예배부 지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교수)는 “Imago” 라는 theo-drama를 제작하여 6월10일 화요일 오후 7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강당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Imago는 그리스도의 몸(형상)을, theo-drama는 “theology-on-stage”를 의미한다. 이

프로젝트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신학적 개념(창조, 타락, 구속, 화목, 연합)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여, 온 인류와 모든 사회적 영역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주님의 몸(형상)을 이룸을 나타내고 있다. 버스는 오후 5시 정각에 교회에서 출발예정이며 버스를 이용할 성도들은 사전에 연락바란다. (영어예배부, 이영숙 부감 010-9358-5237)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31)

(문 131)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5:5과 11:5말씀은 그렇지 않으니 어떻게 해석할까요?

(답) 하나님은 선과 악의 차이를 구별하시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사이를 구별하십니다. 악은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불결한 사람의 악한 성품과 행동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죄인을 사랑하는 것을 부도덕하고 악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예언자 하나님은 착한 왕 여호사밧이 아함과 동맹 맺은 것 때문에 책망을 했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대하19:2)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요1서2:15)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죄와 야합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죄 중에 있는 죄인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로 죄를 지은 죄인을 저주하고 심판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죄인을 향하신 또 다른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 된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를 속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53:6) 하나님은 사탄의 동역자인 죄인을 미워하시지만 그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치 않은 죄인을 미워하시지만 자비와 사랑으로 그를 대하시는 즉 십자가를 통한 거룩한 사랑을 하십니다.(롬3:26)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죄 안에 있는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회개하는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이들의 지체가 되고 성령의 전이된 성도를 미워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 주 계속)



이영기 장로
(흥해작전 참모장)

우리 서울교회는 해마다 상반기에 흥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병거들과 마병과 그 군대들에 쫓겨 흥해 해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을 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외쳤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위로 내밀매 흥해가 갈라졌고 바다가운데 마른땅으로 건넌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기적의 역사를 되새기며 2014흥해작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진군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되풀이 되는 인제 속에서 서로의 잘못만 파헤치고 대안이 보이지 않는 애통한 현실에 주님

의 특별한 은혜와 위로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조국의 현실에 직면 해 있는 우리 서울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린 찢먹이들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온 성도들이 총력을 다하여 흥해작전에 참여하여 말씀과 기도의 대 행진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14년 뜻 깊은 흥해작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호국의 달 6월 현충일인 6일부터 6. 25사변 기념일인 25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영적 전투 작전은 새벽 5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주제는 존 번연의 「천로역정」의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히 11:16)입니다.

박노철 담임목사님의 주옥같은 말씀과 7가지 기도제목으로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두 변화되어 우리 앞에 있는 흥해를 건너 예비된 본향 천성을 향해 총 진군하시길 간구합니다.



서울교회 역사와 함께 한 '흥해작전'



흥해작전은 요람의 찢먹이부터 병상의 어르신까지 모든 성도들이 총력으로 참여하는 말씀과 기도의 대행진이다. 매년 6월 6일부터 25일까지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그리스도의 전사로 달려 나와 개인과 가정, 나라와 민족 앞에 산적한 현안들을 주께 고하고, 눈물을 바치며,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기를 23년, 지난 세월의 흔적은 해마다 제작된 흥해작전 공동기도제목 카드들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 때 그 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내놓은 기도제목 20년치를 찬찬히 읽다보면, 그 시절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 있었고,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 수 있으니, 흥해작전은 실로 서울 교회의 역사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창립 초창기 흥해작전은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기치 아래 갱신과 부흥을 위한 도전들로 채워졌고, 새 예배당 건축이 가시화되던 90년대 후반엔 “기도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며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헌신과 기적이 잇따랐던 시간이었다.

실제로 1997년 흥해작전 마지막 날엔 새 예배당 건축을 몇 년간 끈질기게 반대하던 인근 주민들의 마음이 하룻밤 사이 눈 녹듯이 변해 반대를 철회했던 기적을 맞보기도 했다. 뜨거운 참여 열기는 병상에서도 식지 않았다. 2003년 윤용희 집사의 ‘병상흥해작전’ 이야기는 지금

도 큰 감동을 준다. “2003년 6월 9일, 그 날은 3교구 일제심방 마지막 날이었다. 올해 82세인 윤용희 집사님은 98년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교회 나오시기가 어렵게 되었다...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셔서 병상을 떠나지 못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번 심방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사님의 병상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뭔가가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2003 흥해작전 기도 카드였다. 하루도 빠지 않고 흥해작전이 시작된 그 날부터 7가지 기도제목과 열심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다. 순간 그 방안의 분위기는 숙연해졌다. 모든 심방대원들의 마음은 뜨거운 불덩어리를 가슴에 품고 있는 듯 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의 수많은 프로그램들 가운데는 지금은 안 하거나, 한 두 해 쉬었거나, 이름이나 성격이 바뀐 것도 있었다. 그러나, 흥해작전처럼 창립 이래 해마다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오롯이 지켜온 프로그램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흥해작전이 올해 “본향을 향해가는 순례자”의 주제처럼 서울 교회 온 성도들의 신앙이 한층 성숙할 수 있도록 이번 6월도 온 교회가 새벽을 깨우며 승전하길 소망한다.

(편집부)



2014 방글라데시 단기선교단

복음에 빛진 자의 자세로



박종권 집사
(단기선교단 총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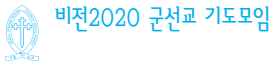
2014년 여름 제15기 방글라데시 단기선교단(지도 황 광목사, 단장 김형상 집사)은 총25명의 단원을 모집완료하고 5월24일부터 8월9일 출발일까지 2달여간에 걸쳐 본격적인 선교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선교단은 고문에 오정수 장로와 하인선 장로, 부단장에 김광태 집사, 총무에 박종권 집사, 서기에 이영숙 권사, 회계에 송행희 권사를 임명하고, 의료팀(팀장: 정현구 집사), 이미용팀(팀장: 김필임 권사), 어린이팀(팀장: 박종권 집사), 지원팀(팀장: 이영희 권사) 4개의 팀을 조직하고 팀별로 선교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현지에는 서울교회가 피송한 조남해 선교사(어린이사역)와 박진영 선교사(의료사역)가 사역중이며 서울교회가 설립한 다카장로교회에서 바로이 목사가 목회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교회가 후원하는 현지인 선교사 10명이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인구가 1억6000만명으로 전 인구의 83%가 이슬람교도이며 이슬람인구가 세계 두번째 많은 국가로 기독교인은 0.3%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25명의 단기선교사들은 복음에 빛진 자의 자세로 방글라데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기도로 무장하고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비전 2020 기도의 용사들



권소의 권사
(군선교 1팀)

군선교를 통하여 우리 민족 75%가 주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비전 2020 운동!

주일 오후 3시 30분 905호에서 자녀들의 안전한 군복무와 군복음화 사역에 앞장서시는 선교사님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철없고 어리기만한 아들이 군 입대를 하면서 각종 사고와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실 나의 아바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군선교 문을 두드렸습니다.

철통같은 장군의 태세로 기도팀을 이끄시는 김영식 권사님, 자녀의 군복무가 이미 끝났는데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정을 다하여 기도하시는 살롬 권사님들, 군입대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 '아! 이곳에서의 기도로 무장된 하나님의 용맹한 군사들이 대한의 아들들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구나! 기꺼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주신 진정한 사랑에 감사한 마음과 감동의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군선교 기도팀의 헌신적인 사랑에 힘입어 저 또한 군복음화를 위한 기도의 용사가 될 것을 기도드립니다.

이토록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흘러 넘치는 군선교 기도애와 보셨는지요? 주님 나라에 영광드릴 군복음화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 부모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한 기도애 함께 동참 하셔서 더욱 굳건한 군복음화를 이루고, 군에 있는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든든한 요새이시고, 방패시며 안전한 포구가 되심을 알기에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담대한 믿음과 주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국가를 든든히 지키며 승리의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언제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매 주일 오후 3시 30분 905호에서 모이는 군선교기도모임

■ 특별찬양 ■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할렐루야찬양대(대장:노문환 장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고성진 집사의 지휘로 "섬김(백하슬기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최기욱편곡)",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최기욱곡)"의 세곡을 찬양하며, 김가람, 박수련, 유동현, 김재준, 임무근 대원이 "내영혼이 은총입어(조혜영편곡)"를 중창으로 찬양한다.

오르가니스트 김현정 집사, 피아니스트 김양연 집사, 팀파니스트 윤주일 집사가 함께 연주한다.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6월 3일(화)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4일(수)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상임대표회의를 참석한다. 7일(토) 사랑의 쌀 운동 기도회 설교한다. 울린바르르대학교 이사회 개회 경건회 설교한다.

■ 개원 : 16교구 노제현집사 '넉넉한 안과' 의정부시 호원동 TEL 031-875-1075, FAX 031-875-1074

- 주일식당봉사 : 안드레선교회 한나전도회(6.1) 베드로선교회 에스더전도회(6.8)
- 금주의 식사 : 이상근 집사 박하실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교회 제공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할머니 소리

유년부 1학년 김예은

할머니 집에 가면 누나와 나워줘 드리는 기도소리 찬송하시는 소리 성경 읽으며 산시는소리 예쁘게 예수님 잘 믿고 커야한다고 당부 하시는소리

척하다 예쁜 다 우리집 보분이다. 훌륭한 사람이 될게야 칭찬하시는 소리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사랑해요 예쁜 우리 할머니

사랑하는 장모님! 신중하고 신중하게! 신중하게! 신중하게! 신중하게! 신중하게! 신중하게! 신중하게! 신중하게! 신중하게! 신중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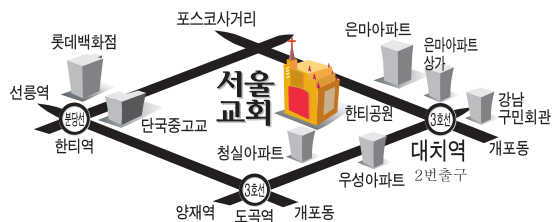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이번 흥해작전을 통해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앞에 놓인 흥해를 가르며 간절한 기도애에 응답 받을 수 있도록
2. 6월 7일 토요일에 있는 해병대교육훈련단 진중세례식을 통해 비전 2020 운동이 힘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3. 더 많은 성도님들이 다락방 모임에 참여하여 말씀과 삶을 나누고 함께 뜨겁게 기도함으로 주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 배	오후 1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